

STORY.02

반수를 서울대 가기

김범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문훈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예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 반수를 결심하게 된 이유, 계기 >

문훈민
반수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많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건 아쉬움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현역 때, 서울대학교에 수시로 원서를 접수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지원했던 학과가 경쟁률이 가장 높았거든요.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서류보다 면접의 중요성이 많이 높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면접을 못 본 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눈에 띄게 잘 본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봤던 것 같아요. 면접을 무난하게 봤고, 결과도 탈락을 했는데,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아닌 다른 대학교에 다녔는데 아무래도 너무 미련이 남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다니면 아무래도 평생 후회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미련이 남아서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예진
저는 사실 삼반수를 한 건데, 현역 때 못 보고 재수를 결심하고, 작년엔 19 수능 때, 국어 영역에서 너무 평소보다 못 봐서, 그 점수로 대학을 지원했는데 계속 미련이 남아서 '한 번 더 해봐야겠다. 그런데 1년을 투자하기보다는 학교를 다니면서 좀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해보고 반수를 해도 늦지 않겠다' 싶어서 반수를 결정하게 됐어요.

김범준
수능장에서 딱 나왔을 때, '아 내가 노력을 적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노력을 적게 했으니까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반수를 하면 현역 때에 비해서는 나 자신의 약점을 되돌아볼 시간도 많을 거고, 학교도 있는 상태니까 내년엔 수능 칠 때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반수를 결심하면서 가장 걱정되거나 신경 쓰였던 부분이 있다면 >

문훈민
아무래도 가장 두려웠던 것은 수능 점수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반수를 결심하기 전도 마찬가지지만, 반수를 결심한 이후에도 만약에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수능 점수 결과가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의 필요로 하는 점수보다 낮게 나오면 또는 수능을 아예 작년처럼 망치면 어찌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두려움 속에서 계속 참고 참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예진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과정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수능 당일 점수를 보고 결정되는 거잖아요. 1년씩 했던 현역이랑 재수 때와는 달리 반수는 더 짧은 시간 내에 이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김범준

반수를 결정했을 때 고민했던 것은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동시에 수능 공부도 같이 병행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과연 갈 수 있을까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또 안 되면 어쩌지 이게 가장 두려웠던 것 같아요.

< 대성학원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

문훈민

사실은 재수종합학원이 많잖아요. 종류가 많은데 대성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사가 길잖아요. 입시 실적도 재수나 N수 하는 학생들은 다 알 정도니까. 저는 반수를 7월 초,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거의 놀았어요.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일주일에 하루 정도. 시간 날 때 가끔 했다. 혼자서 아주 조금씩 공부하면서 느낀 게 혼자 공부하면 아무래도 자신이 객관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게 맞는지 공부를 하면서 나의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에 위치해있는지를 가능해보고 싶어서, 입시 실적이 높다 보면 잘 하는 애들이 그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성학원에서 잘 하는 친구들과 경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계속 공부하다 보면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계속 하루 종일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 또 마음이 리프레시 되고 의지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대성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예진

저는 학원들이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대성학원이 가장 유명하고, 여태까지 굳건하게 최고의 학원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데에는 탄탄한 커리큘럼이 있을 수 있고, 좋은 강사진분들이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것들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일단은 지원을 하게 됐고, 또 하나 더 고려했던 것은 나중에 원서를 쓸 때 대성학원이 표본이 많잖아요. 그래서 입시 컨설팅 면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표본들과 선생님들이 그동안 누적했던 다양한 경험들로 원서를 작성할 때 더 체계적이고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성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문훈민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보통 입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흔히들 몰래 비밀로 하는 말들. 나중에 정시 원서를 접수할 때 상위 대학교에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면 대성학원에 있는 그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성적들, 그게 정말 좋은 자료거든요.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번 대성학원에 다니면 나쁜만 아니라 다른 점수가 높은 애들, 그 점수대까지 고려해서 선생님이 어디에 지원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까 그게 정말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김범준

반수를 하기로 결심했을 때, 부모님께서 주변 지인분들께 많이 물어보셨어요. 어디가 제일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가 물어보니까 다들 강남대성 다니니까 내 아들은 원하는 대학 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 한번 다녀보는 게 어때니 이 말도 저한테 결정적으로 다가왔고,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강남대성이라는 공간은 전국에서 몰려오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와서 경쟁을 서로 한다. 그런 환경에서 네가 힘들게 공부를 하고 이겨낼 수 있다면 네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말로 남아서 대성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의 인간관계나 공부 외적으로 하던 것들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

문훈민

확실히 인간관계가 수험생활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결정을 미리 빨리 내린 편이었거든요. 전적대를 많이 잡아야 5일, 5일 다니고 아예 안 갔어요. 학교생활 잠깐하고, 오티 한 번 하고, 그리고 안 갔죠. 단톡방에서도 말을 하고, 반수 한 번 더 할 것 같다 얘기하고 나왔거든요. 저는 약간 외로움 같은 걸 안 타는 편이어서, 이왕 하기로 했으면 빨리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5일 만에 바로 결정을 했어요. 물론 그 뒤로 6월 말까지 공부는 안 했어요. 놀았어요. 반수를 한다고 말은 했는데, 그 뒤로는 6월 말, 7월 초까지는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1,2시간만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부모님께서는 엄마 독서실에 다녀올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게임방 간다든지 노래방 간다든지 여행 간다든지 일탈을 조금 하긴 했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도 약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2019 수능 때가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당시의 많은 수험생들이 국어 시험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기존에 나왔던 것과 너무 다르게 나와서.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저한테 휴식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예진

애초에 입학할 때부터 반수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새터도 안 가고, 엠티도 한 번도 안 가고, 동기도 한 명도 안 사귀었어요. 혼자 학교 갔다 오고, 수업 끝나면 집에 오고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외롭고 힘들었는데, 오히려 반수할 때는 아 내가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다시 복학을 한다면 지금 이미 동기도 없는데 4년 동안 외롭게 살아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게 수능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원동력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김범준

반수를 입학할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적당히 오는 친구만 사귀고 그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숨겨려 노력을 했고, 학과 행사에도 최대한 참여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차라리 열람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저한테 적합하다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내가 학교생활 즐길 수 있는데도 안 즐긴 거잖아요. 친구도 다 안 사귀고. 재미있는 축제 이런 곳도 안 가고. 정말 실패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게 수능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을 것 같은데,, 공부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 측면에서 어떤 생각들을 했고, 계획들을 세웠는지 >

문훈민

다른 재수생들이나 N수생들에 비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효율적인 공부법을 찾다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대성학원에 가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하원할 때의 시간도 마찬가지로, 밥 먹을 때, 그리고 밥 먹고도 쉬는 시간이 길게 있거든요. 그 시간도 공부를 틈틈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예 어려운 공부를 했던 건 아니고, 간단히 할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제2외국어 문장을 잠깐 보거나, 어제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수학 문제를 다시 머릿속으로만 복기를 하거나 그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예진

시간을 잘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 플래너를 매일매일 작성을 했고, 스톱워치를 항상 공부하는 시간 동안 체크를 했었거든요. 잡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어디 잠깐 나갔다 올 때는 멈춰두고, 공부를 시작할 때 다시 켜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도움이 됐던 것은, 공부를 하면서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하다 보면 힘이 드니까.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면 내가 매일매일 얼마만큼 하는가가 수치로 보이니까. 아, 내가 오늘은 어제보다 20분을 덜 했네, 뭐 몇 분을 덜 했네, 이런 게 매일매일 느껴지니까. 내일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플래너에 매일 작성하면서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더 치열하게 살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김범준

수능을 작년에 실패를 했다는 것은 어떤 과목이 저한테 취약해서 그게 결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에는 현역 때 취약했던 과목,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 제2외국어 이런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더 해서 성적의 안정성을 더 높이려고 했고, 중후반기 때에는 어떤 과목을 하루라도 안 하니까 감각이 확 떨어져서 저한테는 그게 비효율적인 요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매일 전 과목을 손을 대서 감각을 잃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 현역 때 공부했던 것과 반수를 비교했을 때 차이점 >

문훈민

현역 때는 아무래도 수능 공부에 온전히 집중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수시와 정시를 둘 다 준비했었는데, 수시가 아무래도 준비할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내신 관리도 해야 하고, 생기부도 관리해야 하고, 상장이랑 대회, 자소서, 면접 준비해야 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반수 때랑 비교하면 아예 공부량 자체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반수는 아무래도 수능 공부에만 온전히 아침 일찍부터 끝까지 다 매진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 정시를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지. 담임 선생님 앞에서 수업하고 계시는데 저는 정시할 거니까 저 건들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수와 현역 때의 차이는 공부량, 시간 차이인 것 같아요.

이예진

저는 현역, 재수, 그리고 반수 이렇게 비교를 하고 싶은데, 이번 반수 전 그러니까 현역 때랑 재수 때는 제가 좋아하는 과목을 많이 하고, 좋아하고 좀 더 자신 있는 과목은 만점을 맞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 과목에 시간을 많이 쏟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좀 좋아했는데, 그 과목을 하루 종일 하고, 그것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고 못했던 국어, 이런 것은 좀 등한시하고 그랬었거든요. 결국엔 그게 결과로 나타났었고. 이번 반수를 하면서 과목별 밸런스를 맞추는 것을 제일 우선시로 하자 생각해서 하루에 모든 과목을 조금씩이라도 하자. 잘 하는 과목은 좋아한다고 해도 조금 양을 줄이고, 못 하는 과목을 조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과목이 잘 나올 수 있게, 왜냐하면 한 과목을 잘한다고 해서 그걸로 대학에 보내주질 않잖아요. 모든 과목이 잘 나와야 정시 전형으로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거니까 모든 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하는 것이 이전이랑 제일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 대성에서 들은 수업의 시간표도 균형 있는 공부에 도움이 된 건가요

수업이 과목마다 시수가 다르잖아요. 과목 시수대로 제가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복습을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도. 시수마다 정해지게 되잖아요. 복습량도.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도 제가 균형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김범준

현역 때는 아무래도 학교생활이 주가 되고, 방과 후에 비로소 수능 공부를 해야만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간 성실하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정말 의지가 없으면요. 그런데 제가 의지 없는 학생으로서 학교생활이 공부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이제 노는 것도 있고, 밥을 먹고 나서 바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매점도 가야 하고, 체육 시간에 축구도 하고, 뛰고, 이러면 체력 다 방전돼가지고 집에 가면 이제 거의 녹초인데 그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집에 오면 피로가 확 쏟아져서. 그런 면에서는 현역 때 제 공부 시간을 찾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반수를 하면서 아무래도 현역 때보다는 굉장히 시간이 많은 편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재수 때보다는 수능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타이트하게 수능 공부를 해야 했고,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 휴학 상태라는 것이 반수하는 데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

문훈민

휴학 상태는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영향을 먼저 말하면, 아무래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반수를 실패를 했을 때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런 마음의 안도감, 이런 게 좋은 영향이었고. 그런데 그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만약 또 실패를 한다고 해도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었거든요. 한편으로. 안정감이 들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나태해지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좋은 측면이랑 안 좋았던 측면이랑 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예진

저는 휴학 상태가 그래도 제가 대학생활을 엄청나게 즐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험생이랑 대학생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좀 더 대학생이 훨씬 자유롭고 일상에 있어서 정해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휴학 상태면 나는 이제 대학생이 아니다. 나는 이제 수험생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는 데 있어서 휴학이 큰 도움이 됐거든요. 휴학 신청서 딱 내고, 아 이제 오늘부터 나는 수험생이다. 그동안 느슨해졌던 생활습관들을 다시 원래 이전에 수험생활할 때처럼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기 이런 걸로 바꾸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김범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휴학 상태가 굉장히 좋았어요. 학교에서 병행하면서 공부도 해야 했을 때는 공부 좀 하다가 아 다음 강의 시작하네 다시 가방 싸고 나가야 하고, 다시 짬 내서 공부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비밀비재했는데, 이제 휴학을 딱 내니까 이제 내 맘대로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줬고, 한편으로는 내가 변명할 게 드디어 없구나. 이제 학교도 안 다니고 나는 사실 생재수생이랑 다를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적당한 긴장감을 안겨줬던 것 같습니다.

< 다양한 유혹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

문훈민

사실은 유혹이 굉장히 많았죠. 저는 7월부터 공부를 했고, 그전에는 계속 거의 놀다시피 했는데, 사실은 7월부터 한 것도 물론, 그전 아예 놀던 때보다 열심히 공부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놀았던 게 있어서 그래서 가끔은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주말에 야간 자습해야 하는데 아프다고 담임선생님께 뺏치고 몰래 그냥 자습 안 하고 갔던 적도 있고. 유혹이라는 게 그렇다고 아예 안 참기도 어려운 것이라서 가끔씩은 자신이 제어할 수 있을 만큼은 좀 놀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대성의 담임 선생님들이나 학과 선생님, 선생님들의 조언이나 역할이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어를 어느 정도는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희는 매일 조회를 하셨거든요. 그냥 인원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금씩 해주셨어요. 거의 하시던 말씀이 수능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성적이 별로 안 나오는 애들, 열심히 안 하는 애들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약간 화내듯이 다그치듯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너희 다 반수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전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작년 수능 때를 계속 떠올리면서 아픔을 통해서 지금 상태를 힘들겠지만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예진

저는 일단 반수를 하면서 그래도 너무 그냥 기존에 친한 친구들과 단절되는 건 싫어서 SNS 같은 건 계속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래도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친구들이 대학생활을 즐기고, 자기들끼리 여행도 가고,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는데 너무 부럽기도 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게 좌절감도 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주말에 6타임 중에 3타임, 4타임 정도 자습을 하고, 남은 타임에는 집에 가서 TV도 보고, 아니면 친구들이 와서 밥도 많이 사줬었거든요.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고. 반수를 하는 내내 술 같은 건 한 번도 안 마셨거든요. 그건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말고는 큰 유혹이 없어서 잘 반수를 했던 것 같아요.

김범준

반수할 때 유혹은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는 반수를 택했지만,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그냥 대학을 가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 친구들도 있던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야 이제 우리 성인 됐으니까 술자리도 좀 하고 늦게까지 2차, 3차도 가자 이렇게 권유를 해주었는데도 저는 반수를 하느라 못 갔지만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런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냐 하면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생활이 끝나고도 나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주고, 내가 반수를 하고 있는데도 권유를 해주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여주고 그런 친구들이 많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친구들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늦잠을 자는 게 있는데, 학원 끝나면 10시고, 집에 오면 대략 11시쯤 되는데 자기가 굉장히 싫었거든요. 저는. 자고 일어나면 또 학원 가야 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11시에 또 바로 자면 학원 가야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늦잠 자볼까 해서 스마트폰 하면서 늦잠을 잤어요. 한 2시쯤 잤는데. 다음날에 최소한 7시에는 일어나야 하잖아요. 일어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겨우겨우 나와서 자습을 하려고 했는데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정신 들고 보니까 점심시간이어서. 아, 늦잠 자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수험 생활 망하겠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늦잠을 거의 안 잤던 것 같습니다.

**** 주말자율학습은 잘 유지가 되었나요**

주말은 아예 안 나가기도 했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강대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가끔씩 저희에게 동기부여가 될 만한 말씀을 하시는데 주말 자습을 안 하면 필패다.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해서.

< 반수에서 중요한 게 있다면 (반수의 중요 포인트) >

문훈민

굳이 반수가 아니라, 재수생활도 마찬가지로, 다른 N수생활도 마찬가지로 9월 평가원 이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런 평가원이 내는 문제 경향이 그대로 수능에 반영되는 거니까 또 9평이 끝난 이후는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9평이 끝나면 자신이 모의고사를 풀 때 하는 여러 가지 실수들이라든지 습관들을 정말 빠르게 고쳐야 얼마 안 남은 수능에서도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모의고사를 보고 난 후의 분석이나 정리는 어떤 식으로 되었나요**

사실은 초반과 후반이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대성에서 여러 가지 모의고사를 보고, 제가 틀린 게 있잖아요. 또는 잘 이해 안 가는 문제들도 있었고. 그럴 때는 처음에는 틀려도 분석 같은 것 별로 안 하고 사설 문제니까 더럽게 냅나 보네. 그런데 그 생각이 조금 고쳐진 게 뭐냐 하면 2019 수능 국어 때. 원래는 평가원은 평가원스럽게 낸다, 사설은 사설스럽게 낸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사고했었는데 그걸 평가원이 깬어요. 평가원스러운 건 따로 없고, 평가원도 충분히 사설스럽게 낼 수 있고, 반대로 사설도 평가원스럽게 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저는 아예 없앴고요. 작년에 봤던 9평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는 사설도 제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 일일이 분석하고, 왜 틀렸는지 분석도 했고, 또 실수 같은 거나 습관 같은 것도 고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예진

저도 모의고사를 많이 보는데 초반에는 제 전반적인 좌표, 지표 같은 걸 파악하려고 썼는데 내가 이 과목은 좀 강하고 이 과목은 좀 부족하고 이런 걸 파악하면서 전반적인 내 성적 분포를 확인하는 위주로 썼고, 수능이 얼마 안 남았을 때 10월부터는 제가 틀린 선지들 하나하나 분석하고, 기억할 만한 것들은 다 적어두고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보고 그걸 분석하지 않으면 그 보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푸는 연습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풀었던 시간이 아깝지 않게 활용하려고 다 분석해서 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데에 잘 활용했었던 것 같아요

** 모의고사 때마다 분석한 것들을 모았다가 분석 이후에 따로 마무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틀리는 유형들이 있을 수 있고, 틀리는 개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확실히 아는 건 그다음에도 틀리지 않는데, 제가 틀리는 건 계속 틀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만 줄여도 수능 때 훨씬 더 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조그만 점수를, 잃는 점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수를 안 잃으려고 내가 이런 유형을 자주 틀리네 이런 걸 기억을 해주었다가 마지막에는 수능 전날에 들고 갈 노트에다 내가 국어에서는 이런 유형들을 틀린다, 탐구에서는 이 학자 개념을 자주 헛갈린다 이런 식으로 적어서 직전에 보면서 수능 시험지를 보면서 이걸 기억할 수 있게.

김범준

반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절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를 걸어두었으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안 하면 그냥 그 학교 다시 다니고 말지 이렇게 설렁설렁한 마인드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반수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끝까지 힘을 내는데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절박해져라 이 말을 야간반 때 강대 담임선생님께 들었어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절박하지 않구나 내가 아직. 이 말을 듣고 찢렸거든요. 그러니까 절박하지 않다는 거죠. 절박해진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하니까 공부를 할 때도 1분 1초가 정말 아깝게 느껴져서 더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힘들고 지친 부분은 없었는지. 너무 의지를 강조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관리를 잘 했는지

절박해져라 이 말이 계속 되었는데, 속으로, 하루 종일 매일매일 되었지만 저도 힘든 점이 많았어요. 하루 종일 저는 앉아있었거든요. 다른 애들이 점심시간 밥을 먹고, 매점 가거나 수다 떨 때 저는 그 시간도 사실 아까워서 절박하게 공부했었는데 저만 바보같이 느껴지고, 비효율적으로 너무 시간만 강조하는 것 아닌가 해서 슬럼프에 빠졌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죠.

< 휴학과 무휴학, 학교반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결론 내렸는지 >

문훈민

사실 휴학 시기를 결정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반수를 할 때. 보통은 대학교 1학기가 끝나는 7월부터 반수를 하는데, 2학기는 휴학을 하고.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현재 상태와 목표로 하는 대학 간에 어떤 요구 하는 거리를 정말 잘 계산해서 시기를 결정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본인이 목표로 하는 대학과 현재 나의 상태가 별로 차이가 안 나면 7월에 반수해도 되고, 아니면 더 늦게 9월부터 반수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 이 목표로 하는 대학과 자신의 현재 상태가 멀다,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굳이 2학기부터 휴학하지 않아도 1학기 때 유급으로, 아니면 저처럼 5일 다니고 안 다녀도 되고요. 본인의 현재 상태와 목표로 하는 대학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휴학이라는 게 보통 1학기 휴학이 되는 대학교가 거의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 빼고는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1학기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까지 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 본인이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휴학을 할 수는 없지만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안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예진

저는 일반적인 반수생들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저는 휴학을 했었고, 무휴학한 친구도 봤는데, 휴학을 하지 않으면 일단 공부하는 데 있어 방해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걸 보러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시험 보러 간다고 학교 갔다 오느라 오전 자습을 못 한다거나 수업이 시작했는데 수업을 못 듣고 늦게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2학기를 휴학하고 완전히 수험 생활에만 집중하는 게 맞지 그렇게 걸쳐놓으면 공부를 차라리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해서 다른 학교를 가면 되지 굳이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니고 단지 걸쳐놓고, 공부를 하는 것도, 학교를 제대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한 상태로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휴학을 하고 반수 생활을 하는 게 좋은 결과를 열어내는 데 있어서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김범준

2월부터 6월까지 1학기잖아요. 대학에서. 저는 최대한 일찍 휴학을 하고 싶었는데, 1학기에 휴학이 안 되는 대학교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였고. 어쩔 수 없이 다녀야 하는데, 제가 이 학교를 정말 다니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 학점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9학점이 최소 학점이더라고요. 그래서 3학점짜리 3개를 9학점으로 해서 듣고, 또 그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강대 시스템이 신기하게도. 2월 야간반 시스템이 있고, 6월 야간반 시스템이 있는데, 6월 야간반 시스템은 저희 같은 반수생들을 배려해주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월수금 아니면 화목 이렇게만 딱 다니고 나머지는 대학교 시간표에 맞춰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해주니까 저는 부담 없이 대학생활이랑 수험생활 동시에 할 수 있었고 2학기에는 제가 휴학을 할 수 있었으니까 휴학을 하고 6월 야간반 자체가 너희가 이제 휴학을 했으니까 하루 종일 할 수 있게 월화수목금 다 다녀야 한다 그렇게 짜여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로 6월 야간반 등록하고, 휴학을 내고 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스텝을 받았던 것 같아요.

** 2월 야간반 때 학원에 와서 자습을 많이 했는지

수업이 없는 날에도 자습을 할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가기 싫어서 안 갔는데. 한 번 심심해서 수업이 없는 날 가봤죠. 애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는 자극을 받아서 웬만해서는 수업 없는 날에도 가서 자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습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 반수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 조언을 해준다면 >

문훈민

본인이 만약 정말 반수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으면 확실하게 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괜히 전적대도 다니고 다른 생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다가 정말 목표를 다시 한번 놓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미련을 남기지 않고 확실하게 결정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

공부를 하다 보면 나태해지는 시기들이 많이 와요. 그런 시기들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오는데, 그런 걸 극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받을 만한 작년 수능 국어를 계속 떠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극복했거든요. 본인만의 나태해지는 시기가 올 때 극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예진

일단 반수를 하기 전에 본인이 반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충분히 고민을 한 다음에, 반수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학원 수업을 모든 수업을 빼먹지 않고 다 성실하게 따르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수업들이 다 도움이 되니까. 어떤 수업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이 내용은 내가 아는 내용이야 이러면서 거르는 것 없이 될 수 있으면 다 듣고.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생활하기.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언제까지 내가 등원을 하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에는 잠깐 쉬고, 이런 걸 정해서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활동을 한다면, 대성학원의 커리큘럼과 함께라면 별 어려움 없이 반수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결심을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집중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해요.

** 아침에 일찍 나오고, 등원 늦지 않게 하고, 그런 생활이 가능한 게 대성에서 이제 계속 관리하고 그런 도움들을 받았는지

야간반에는 상벌점 제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각을 하면 벌점을 담임 선생님께서 누구누구 지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것도 반수반에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불리면 창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 부분에 있어서는 학원에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 몇 시까지 카드를 통해서 출결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의 자유로웠던 생활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학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김범준

반수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저처럼 수능장에서 나왔을 때, 아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나왔네. 그런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과 내가 받은 수능 성적 가지고 이대로 살면 아쉬거나 또는 후회할 것 같다 이런 분들께는 한 번쯤 해 볼 만하다고 추천합니다. 특히 고민될 수가 있어요. 반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도 지금 성공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반수를 고민하는 친구들은 나중의 결과를 모르거든요. 성공할지 안 할지.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저처럼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시도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